

레슬링 부활하나

야구·소프트볼, 스쿼시와 함께 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에 선정

지역 레슬링계 “대환영”

9월 1개 종목 최종 결정

레슬링이 2020년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는 30일(한국시간) 새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0년 하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에 포함될 후보로 레슬링과 야구·소프트볼, 스쿼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레슬링, 올림픽 퇴출위기서 회생=2주 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IOC는 25개의 핵심 종목을 선정하면서 레슬링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레슬링은 2020년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집행위 결과로 레슬링은 부활 가능성을 밝혔다.

이날 집행위에서는 레슬링과 야구·소프트볼, 스쿼시 외에 가라테, 러스터스포츠, 스포츠클라이밍, 유수, 웨이크보드 등 8개 종목이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로 선정되며 경합을 벌였다.

각 경기 단체가 30분간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뒤 집행위원들의 투표가 이어졌다. 레슬링, 스쿼시 외에 가라테가 3개 종목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야구·소프트볼이 1차 생존 명단에 들었다.

2008년 베이징대회까지 정식 종목으로 치러진 야구·소프트볼 역시 12년만에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설 꿈을



국제 레슬링연맹 관계자들이 30일(한국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레슬링과 야구, 스쿼시 등 3종목이 2020 하계올림픽 정식종목 후보로 선정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풀리게 됐다. 스쿼시는 두 차례 정식종목 도전에 고배를 마신 뒤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다.

레슬링과 야구·소프트볼, 스쿼시의 3개 종목은 9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를 통해 2020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 자리를 놓을 예상된다. 이 가운데 1개 종목만 2020년 올림픽 정식 종목의 빼를 꺾는 개혁에서 비롯됐다.

FILA는 여성 부회장 자리를 신설해 ‘양성 평등’을 구현하려던 IOC의 목소리를 반영함은 물론 세트제 폐지, 폐기사 제도 보완 등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이란, 일본 등 레슬링 강국의 반대 여론전도 큰 힘이 됐다.

◇광주·전남 레슬링 꿈나무에 희망=레슬링이 2020년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 레슬링 지도자와 선수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

기다.

지난 2월 하계올림픽 핵심종목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았던 레슬링이 3개월 만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들로부터 ‘오케이’ 판장을 받아온 원동력은 국제 레슬링연맹(FILA)의 빼를 꺾는 개혁에서 비롯됐다.

FILA는 여성 부회장 자리를 신설해 ‘양성 평등’을 구현하려던 IOC의 목소리를 반영함은 물론 세트제 폐지, 폐기사 제도 보완 등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이란, 일본 등 레슬링 강국의 반대 여론전도 큰 힘이 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전남 레슬링 관계자들은 이 달 열린 장흥 전남도 체육대회와 대구 전국 소년체전에서 퇴출반대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대내적인 레슬링 올림픽 퇴출반대 운동을 펼쳤다.

이종규(61) 광주체육중 레슬링 감독은 “이제 레슬링 꿈나무들이 올림픽 무대에서 뛰는 희망을 갖고 후련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체육중·고, 학령중·고교, 나주 호남원 예고 등 9개교 300여명의 레슬링 유망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시청 김덕현·이성 “세계선수권 가자”

〈멀리뛰기〉 〈높이뛰기〉



김덕현 이성

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따낼 선수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기록(10·23) 보유자인 김덕현(22·안양시청)과 종별대회 남자 일반부 우승자 이호수(26·경찰대)가 선봉에 선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자는 늘어날지도 주목된다. 연맹은 세계 선수권 대회 기준기록 2m280에 도전한다. 5월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2m20을 도약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은 2m24이다.

이와 함께 남자 100m에서 새로운 한국기록이 탄생할지, 트랙과 필드

5명을 확정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6월 5일~8일 여수서 전국 육상선수권 대회

기준기록 통과 관심 집중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 김덕현(27·멀리뛰기)과 이성(26·높이뛰기)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8월 개최) 기준기록에 도전한다.

대한 육상경기연맹과 전남도 육상 경기연맹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여수 망마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1100여명의 육상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한국 최고의 육상 선수를 가리는 ‘제67회 전국 육상 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과 제8회 세계청소년 육상선수권대회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다.

멀리뛰기 김덕현은 지난 5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종별 선수권대회 멀

리뛰기에서 8m08을 뛰어 세계선수권대회 B 기준기록(8m10)에 불과 2cm 차로 다가서 출전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대구 세계 선수권대회 세단뛰기 경기장에서 열리면서 김덕현은 뛰어 첫 시합인 5월 종별 대회에서 종전 대회신기록(7m99)을 14년만에 갈아 치우면서 부상에서 완전 회복했음을 증명했다. 부상이전 김덕현은 2008년 전국체전 한국신기록(8m20) 달성(2008년),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8m11) 획득 등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높이뛰기에 출전하는 이성 역시 세계선수권대회 기준기록 2m280에 도전한다. 5월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2m20을 도약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은 2m24이다.

이와 함께 남자 100m에서 새로운

한국기록이 탄생할지, 트랙과 필드



김유진 김영석

련해 7월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계대회가 열릴 멕시코 푸에블라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임을 고려해 6월부터 선수촌 대회장과 훈련시스템을 갖춘 경기대회 등에서 대표팀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대 김유진은 “초등 6년부터 태권도를 해왔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돼 기쁘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훈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조선대 김유진·첨단고 김영석 태권도 국가대표에

조선대 김유진(4년)이 오는 7월 멕시코 푸에블라에서 열리는 ‘2013 WTF(세계 태권도연맹)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남자 라이트급(-74kg) 김유진은 3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서 열린 2013년도 국가대표 선발 3차 평가전에서 국군체육부대 권혁진과 겨루 10-0으로 크게 꺾여 세계 대회 무대에 오르게 됐다.

또 광주 첨단고 김영석(3년)은 남자 팔금(-54kg)에서 동아대 김태훈에 이어 2위를 차지해 10월 중국에

서 열리는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나선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제급별 상위 3명씩 추려 지난달부터 3차례 평가전을 치러 왔다.

지난해 청소년 국가대표에 이어 시니어 국가대표에 선발된 김영석은 “시합을 뛸 때마다 5~6kg씩 체중감량하느라 힘들었다. 동아시아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대 김유진은 “초등 6년부터

태권도를 해왔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돼 기쁘다”며 “남은 기간 열심히 훈

련해 7월 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세계대회가 열릴 멕시코 푸에블라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임을 고려해 6월부터 선수촌 대회장과 훈련시스템을 갖춘 경기대회 등에서 대표팀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금매 수도권

경기도 시흥 국제도시

시흥시청 전철역세권 3천평원~액까지 기능

(시정 철역역 현재 공사중 2016년 개통)

★ 3.3m당 15만원 부터(소액투자 가능)

★ 송도 국제도시와 10분거리

전철 역세권 투자목적인 분 희망

상담전화 010-9135-8988

07:00 엄주체육관 주차장, 07:20 무등경기장 후문, 07:30 문예회관 후문, 07:40 문예회관 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디클라비 광주한빛신도시회 010 3131 3580

▶광주한빛신도시회 010 3131 3580